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칭타오이공대학교칭타오대학	기숙사비	한화 약 120만원/한 학기
파견지역	칭따오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O)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8.9.4.~2019.1.15	기타비용	와이파이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남	학 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9. 1. 24.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우선 레벨별로 이루어지는 학습방식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담당 과목별 선생님들은 수업에 대체로 열정적이고, 교수와 학생이라는 상하관계가 명백한 관계이기보다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수업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연강이고, 평일 매일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수업시간배정은 교환학생에 있어서 여러 스케줄 관리에도 용이하며, 실력향상에 꾸준히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발표수업도 존재하고, 학급에 여러 국가들이 모여 있는 만큼 여러 나라의 흥미로운 문화와 생활양식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가능하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막상 HSK자격증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기 보다는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업들이 많이 있으며, 레벨이 높은 반에 갈수록 생활보다는 좀 더 고급회화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중급반을 넘는 고급회화반이 존재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학교내에는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급반을 최고 높은 반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 장기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중급반보다 높은 반이 추후에 설정된다는 가정 하에 이공대학교는 충분히 훌륭한 교육환경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만 수업은 물론,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혼용한 수업방식은 제 중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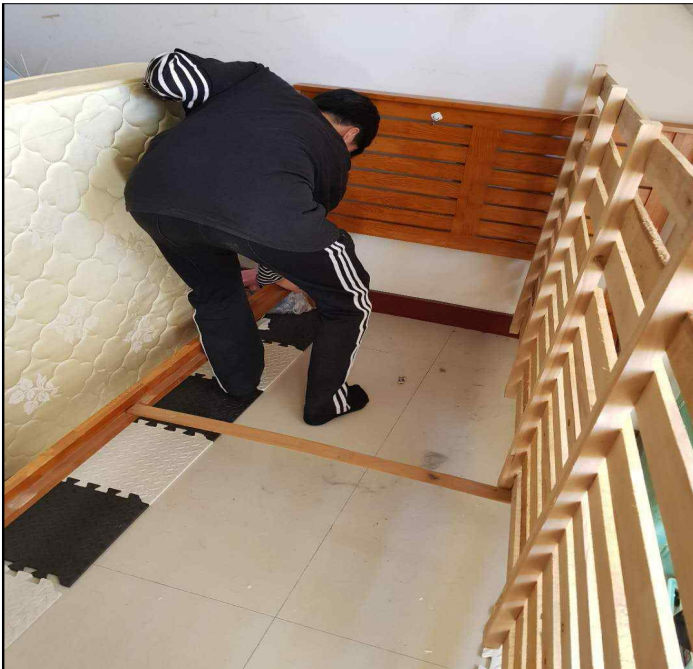
사실 처음 이공대학교 금도학원에 도착했을 때 학교가 생각보다 시골에 위치해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지만, 부수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땐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점이 약간 불편했습니다. 일단 상점들은 오후 10시가 되면 모두 문을 닫고, 길거리에 위치한 음식점들은 식사 때가 아니면 모두 철수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폐쇄적인 곳에 위치한 만큼 유학생들끼리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졌고,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인들의 생활에 맞춰서 생활해서 적응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칭따오의 기후는 여러 선생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눈도 많이 오지 않고, 추위도 극도로 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겪은 칭따오 날씨는 오히려 한국에 비해 훨씬 추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은 유일한 장점 하나는 공항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것은 특히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평범한 학교생활이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위치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점과 같이 학교가 시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내로 나가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 저렴한 교통비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내에 위치해 있지 않은 점이 이 학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주요 편의시설은 잘 구비되어 있고, 무엇보다 학교 내에 주점이나 음식점들이 위치해 학교내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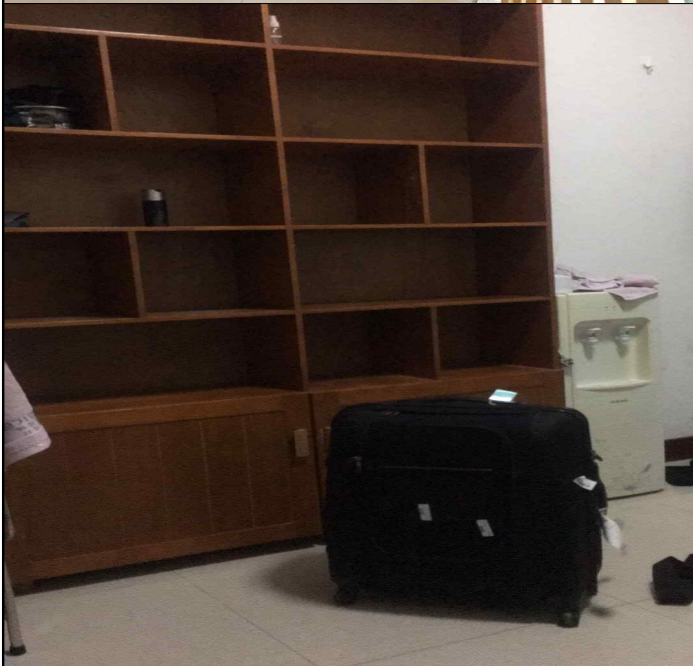
■ 기숙사 정보

비 용	한화 약 120만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내부흡연 금지, 고성방가 금지, 청결유지 ,전기 낭비금지		
주요사항	전기가 생각보다 잘 끊기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땐 항상 유의해야 함.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침대가 많이 허약해 망가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 스스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기숙사 사관에게 요청하여 간단히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요청과 동시에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런식으로 서랍이 배분됩니다.
 서랍장은 생각보다 넉넉해 수납공간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자주 닦아 주어야 합니다.
 모든 방의 구조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는 책상배치를 유지했습니다. 서로 공부하기 좋고 친한 친구끼리는 이야기하기도 좋기 때문에 저렇게 이러한 배치를 유지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옷걸이들을 걸어 놔는데 위치는 본인 기호에 맞게 설정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때나 기념일에는 이것과 같이 본인에 알맞게 인테리어를 해도 괜찮습니다. 방을 꾸미는 것은 자유지만, 퇴실 시에는 항상 원래 입주할 때의 모습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저희방은 한국식 좌식생활에 익숙해 신발을 벗고 생활하기 위해 바닥에 타일을 설치했습니다. 타일을 설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확실히 하루 고생하고 한학기 내내 편하게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숙사 사관에게 허가를 받았고, 사비로 설치했습니다. 특히 신발을 신고 이용하는 방식이라 방에 먼지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타일 설치 후 먼지가 확실히 줄고 청소를 매일하는 번거로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강의실에서 발표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발표는 아니지만 가끔 본인의
고향이나 나라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이러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기억에 남는 수업중 하나였습니다.



강의실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물론 담당
교수님의 허가가 있다면, 연습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신입생 환영식을 위한 연습실로
많이 애용했습니다. 강의실은 수준별로 다 다른
강의실을 이용하고 한 학기 내내 같은 강의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강의실의 환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는 교실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의 당구장과
학교내부의 세탁실, 주점, 고치집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존재합니다. 또한
스포츠를 위한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격투기장, 헬스장 등등
복합시설역시 구비되어 있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교환학생기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외국인들과의 잦은 교류와 수업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줄지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점심시간에는 학교 정문에 발디딜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다같이 점심식사를 구매하는 모습들, 모두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QR코드를 포함해 중국특색사회주의에 알맞게 경제활동 역시 너무도 활발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인식하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세계와 공감하지 못해도, 충분히 그들끼리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더 발전된 운수산업에 대해 놀랐고, 중국을 이만큼 발전 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역시 사회주의가 알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참여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향을 발표하는 발표수업도 있었고, 약 한달에 한번정도 진행되는 받아쓰기, 중간평가 등등 학업에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업이외에 신입생을 환영해주는 학교내에서 가장 큰 행사를 운중계 유학생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국민가요라고 칭해지는 ‘愛’를 창작올등과 함께 합창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좋았고 격렬하게 환영해주었기 때문에 학기 시작과 동시에 저는 너무도 이궁대학교가 좋았습니다.

수업 이외에도 교환학생을 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중에는 한국 뿐 아니라, 태국 러시아,이탈리아,네팔 등 많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 들었고, 특히 종교에 관해서 인식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 정문앞에는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무슬림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이 소고기나 다른 재료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이슬람 친구들을 중국에서 만났고, 어쩌면 생활면에서 정 반대의 힌두교친구와 이슬람 친구가 서로 뒤섞여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눈 파랑고 코 높은 흔히 칭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어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동양인들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저는 은근히 같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먹는 한국식 피자완 스파게티는 아직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도중에 ‘서안(西安)’ 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생겨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서안에서의 여행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사실 칭따오보다 더 큰 도시에가서 그 도시의 여러 유적지를 보고 대도시만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들을 경험하니, 정말 한국에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중국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많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던 SNS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화폐단위도 달라 경제관념도 확실히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그러한 어려움들은 전부 잊고 좋은 기억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어디 교환학생을 추천하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칭따오를 목소리 높여 추천할 것입니다. 짧은 유학생살이었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로 열심히 공부하며 나눴던 기억들은 평생 가지고 갈 것입니다.